오늘은 상처 연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후시딘과 마데카솔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처 났는데 후시딘 바를까, 마데카솔 바를까?"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여도 돼?"

"햇빛 쬐거나 화장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두 제품 다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막상 사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시딘을 중심으로, 궁금했던 사용법과 마데카솔과의 차이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뭐가 달라요?

후시딘은 '퓨시드산'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주성분이라 세균 감염 예방에 탁월해요. 마데카솔은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더해 새살 재생을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처가 조금 아문 뒤 피부 재생까지 필요할 때 유용하답니다. 따라서 흙 등에서 넘어지거나 유해균에 감연된 것과 같이 세균 감염 위험이 큰 상처는 후시딘 연고,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일반적인 상처, 가벼운 화상, 민감한 피부의 상처는 마데카솔 연고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후시딘과 마데카솔, 언제 바르는 게 좋을까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후,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하루 1~2회, 상처 부위에 소량만 바르고 필요 시 거즈나 밴드로 덮어줍니다.

3.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바르고 밴드 붙여도 돼요?

네, 밴드로 덮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연고가 밖으로 새는 걸 막고, 상처 부위를 습윤하게 유지해 회복을 돕죠. 다만 과도한 습기가 느껴진다면 잠시 벗겨서 환기시켜주세요.

4.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바르고 메이크업 해도 되나요?

연고를 바른 직후에는 화장은 잠깐만 미뤄주세요. 보통 10~20분 정도 지나 피부에 흡수되고 표면이 마르면 가볍게 화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 부위를 너무 두껍게 화장하거나 강한 화장품을 쓰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처 부위는 화장이 안 닿게 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후시딘과 마데카솔에 대해 자주 묻는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상처 치료는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연고 선택과 사용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연고를 써야 할지 더 명확해지셨길 바라요!